

## 현대차, 세계최초 수소전기트럭 양산체계 구축

## 스위스 첫 수출... 유럽공략 속도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 수출 경쟁사와 차별화된 수소생태계 구축 생태계 활용한 차량 제공방식 선택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대형트럭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 공략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현대차는 6일 전남 광양시 광양항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한 수소전기 대형트럭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10대를 선적하고 스위스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승용차에 이어 트럭부문에서도 수소전기차 대량 공급을 본격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 리더십을 상용 부문으로 확장하고, 수소전기차 리딩 브랜드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형트럭의 경우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투입되는 프로토타입과 전시용 컨셉트카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일반 고객 판매를 위한 양산체계를 갖춘 것은 현대차가 최초다.

이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스위스 수출은 현대차의 서유럽 대형 상용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선적 모습.

차 시장 첫 진출인 동시에 주요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수소전기 상용차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단순히 차량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와 차별화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활용해 차량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수소 생산기업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연합체, 대형 트럭 고객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수소전기 대형트럭 생태계’ 구성을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단순 차량 공급을

넘어 유럽 수소 밸류체인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가 함께 순환되는 수소사업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공급지역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북미 상용차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현대차와 스위스 수소 솔루션 전문기업 H2에너지의 합작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로 인도되며,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40대를 추가로 수출한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600대를 공급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임수빈 “하반기 정도경영 집중”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

태광그룹 ‘정도경영ON’ 제작·전파 외부고객 만족이 기업의 핵심가치

태광그룹이 올 하반기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정도경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임직원 대상으로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온라인 영상시리즈 ‘정도경영ON’을 제작해 전파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외부교육은 물론 임직원 간담회 조차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간접소통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정도경영ON’은 외부고객 만족이 기업의 핵심가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태광그룹의 현주소, 나아갈 방향 등을 시리즈별로 차곡차곡 담고 있다.

영상은 정도경영 전도사로 나선 임위원장의 인터뷰 3회와 계열사별 협력사들의 고충을 담은 인터뷰, 그리고 고객만족을 이룬 다양한 성공·실천 사례 등으로 7월 말까지 매주 1회씩 모두 5회 나온다.

임 위원장은 인터뷰 영상을 통해 “지나해가 고객 중심의 정도경영을 위한



임수빈 정도경영위원장

/태광그룹

변화의 첫 해였다면, 올해는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정도경영을 추진하는 해”라며 “외부고객은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올 초 도덕성 확립을 위한 행동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고객과의 인터뷰 등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이번 영상이 모두 공개되면 부서별·직급별 토론회를 통해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태광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6·7월 두 달 간 영상시청을 진행, 부서별·직급별 토론회 등을 통해 외부고객 만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 LG 나노셀 TV,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획득

LG전자 1나노미터 미세 입자 활용 주요 성능 유지 하며 에너지 효율 ↑

LG전자가 프리미엄 TV ‘옴므 효율’ 경쟁에 뛰어 들었다.

LG전자는 2020년형 ‘LG 나노셀 TV’ 신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울트라 HD TV AI 씽큐로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나노셀 TV까지 1등급 획득에 성공하면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 중인 옴므 효율 환급 가전 사업 대상 모델을 추가했다.

나노셀TV는 약 1나노미터 크기 미세 입자를 활용한 프리미엄 LCD TV다. LCD 패널 위에 나노 입자를 입혀 빛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자연색에 가까운 색을 구현한다.

LG전자는 주요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IPS



LG전자는 나노셀 TV도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LG전자

패널로 120Hz 주사율도 지원한다. 돌비 비전IQ와 HDR10 등 다양한 HDR 포맷과 함께,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한다.

가격은 55형이 159만원, 65형이 244만원이다. 8월에는 75형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19일까지 전국 LG베스트샵과 온라인 공식 판매점에서 예약판매를 진행하며, 모델에 따라 최대 20만원 캐시백이나 왓차플레이 6개월 이용권을 증정한다.

/김재용 기자 juk@

## 현대위아, 수소전기차·협동로봇 등 3대 지속경영 방침 마련

‘2020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통합열관리모듈 사업 등 진출

현대위아가 수소전기차 부품과 협동로봇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위아는 6일 경제·사회·환경 등 경영 성과와 향후 목표를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간한 ‘현대위아 2020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대위아가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향후 경영 목표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위아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과 스마트팩토리, 미래형 무기 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현대위아는 ▲친환경차 부품 개발 등 미래가치 창출 ▲공정거래 내재화 등 협력사 상생발전 ▲사업 특성을 활



현대위아 직원들이 6일 경기도 의왕시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현대위아 2020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위아

용한 CSR 강화를 지속가능경영 3대 방침으로 세웠다. 현대위아는 이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수소전기차부문에선 ‘공기압축기’ 사업과 공

조를 포함한 친환경차 내부의 모든 열을 통합해 관리하는 ‘통합열관리 모듈’ 사업에 나선다.

기계부문에서는 스마트팩토리와의 함께 로봇으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선다. 현대위아는 최근 로봇개발팀을 신설하고 작업자와 함께 일하며 효율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협동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현대위아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도 밝혔다.

이에 현대위아는 최근 상생협력팀을 신설해 국내외의 1600여개의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는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 협력사에게 납품 금액 전액의 1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 LG전자 “금성 에어컨에 얽힌 사연 찾습니다”

휘센 브랜드 론칭 20주년 이벤트 5명 선정 휘센 씽큐 에어컨 교체

LG전자가 휘센 브랜드 론칭 20주년을 맞아 52년 에어컨 역사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LG전자는 6일부터 ‘골드스타’ 에어컨에 얽힌 사연을 접수해, 이중 5명을

선정해 휘센 씽큐 에어컨으로 교체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 밖에도 추첨을 통해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금성 에어컨을 SNS에 공유하는 고객에도 추첨을 통해 골드스타 유리컵과 에코백 등 뉴트로 굿즈를 선물한다.

LG전자는 이번 이벤트로 LG에어컨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브랜드 역사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밀레니엄 세대와 중장년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뉴트로’ 감성을 활용했다.

이벤트는 다음달 7일까지 LG전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된다.

/김재용 기자

## 현대차, 휴가철 맞아 대표 차종 시승 이벤트

아반떼, 그랜저 등 250대 마련

현대자동차가 여름휴가 기간 동안 고객들에게 현대차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4박 5일간 다양한 차종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프라이빗 비캉스 렌탈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2개 차수로 운영되며 차수당 250명씩 총 500명의 고객에게 현대차의 대표 차종을 경험해 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벤트 대상 차량으로 ▲팔리세이드 ▲아반떼 ▲쏘나타 ▲쏘나타HEV ▲그랜저 ▲그랜저HEV ▲베뉴 ▲코나 ▲코나HEV ▲투싼 등 총 250대를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7월 6일부터 15일까지 현대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시승센터와 차종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7월 21일 홈페이지 및 개별공지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